

분석서 구성

- 용어 정리

*사상적 입장: 해당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

*공통적 입장: 둘 이상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입장

*차별적 입장: 한 사상가는 동의, 나머지 사상가는 비동의할 입장

[Comment] 주요 사상가 정보, 선지에서 봐야 할 포인트 혹은 해야 했던 생각, 필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정답 선지] 이 선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 선지]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 당연하게 오답인 선지는 설명을 생략함.

[Tips] 해당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하면 좋은' 생각.

(정답률 출처: 메가스터디)

#공리주의_벤담, 밀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갱,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갱: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p>
(나)	

<보 기>

<p>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p> <p>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p> <p>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p> <p>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밀의 차별적 입장과 공통적 입장을 묻는 밴다이어그램 유형의 문제이다. 6월 모의평가 오답률 1위의 문제였으며, 선지 내 개념의 포함 관계를 지독하게 건드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답 선지]

ㄴ.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 하는 공리주의 사상가로, 좋은 목적(결과)이 있다면 나쁜 수단(의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벤담은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 밀은 질적으로 고급인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지녔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벤담과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벤담 뿐만 아니라 밀 또한 쾌락 양의 증가를 통해 행복이 증진될 수는 있다고 보았다.

ㄹ. 밀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밀은 저급한 쾌락도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면 바랄 수 있는 쾌락이라고 보았다.

[Tips] 밴다이어그램

밴다이어그램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은 공통적 입장, 나머지 부분은 차별적 입장**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묻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모든 사상가가 해당 선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A의 B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 답일 때)

1.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2.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3.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혼합_사르트르, 듀이

2.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에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p> <p>을: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p>
(나)	<p>The flowchart starts with a box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leading to decision diamond A. From A, a solid arrow labeled '예' leads to decision diamond B, which then leads to a box '갑의 입장'. A dashed arrow labeled '아니오' from A leads to decision diamond C, which then leads to a box '을의 입장'. A legend indicates: '출발 조건' (solid line), '판단 내용' (diamond), '판단 방향' (dashed line), and '사상가의 입장' (wavy line).</p>

<보 기>

ㄱ. A: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ㄴ. B: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ㄷ. B: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ㄹ. C: 도덕적 인간은 선택되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갑)와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2번부터 고난도 유형인 순서도가 출제되었으며, A는 듀이에 대한 사르트르의 차별적 입장, B, C는 각각의 사상적 입장을 골라야 했다. 또한 ㄷ 선지의 '항상'이라는 어휘는 포함 관계를 건드리니 조심하도록 하자.

[정답 선지]

ㄴ.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포된 존자라고 보며, 자유로 인해 선택의 불안에 빠지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실존이 회복된다고 보았다.

ㄹ.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다. 듀이는 도덕의 핵심을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며, 이에 따라 도덕적인 인간은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선택되는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사르트르와 듀이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부정했다.

ㄷ.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지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주체적 선택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Tips] 순서도

순서도 유형은 '**화살표가 갈라지는' 파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갑은 '예', 을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입장**으로, 두 사상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단, 3명의 사상가가 나올 경우에는 화살표가 달는 두 사상가만 먼저 판독해야 한다.

#자본주의_케인스, 하이에크

14. (가)의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국가는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효 수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p> <p>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획 경제는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 경제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0px;">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 style="text-align: center;">→ : 비판의 방향</p> <p style="text-align: center;">A, B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5px;"> </div> <div style="font-size: small;">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div> </div>

-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Comment] 자본주의 사상가 케인스(갑, 정확히는 수정 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을,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의 비판 문제이다. 항상 까다로운 비판 유형이지만 출제 요소 자체는 무난했으며, A는 하이에크에 대한 케인스의 차별적 입장, B는 케인스에 대한 하이에크의 차별적 입장을 고르면 됐다.

[정답 선지]

① 케인스의 하이에크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다. 케인스는 하이에크와 달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②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③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 ④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는 시장 구성원을 예측시키는 체제라고 보았다.
- ⑤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Tips] 비판 유형

비판 유형의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적 입장 찾기’이다. 비판 유형의 선지는 ‘A는 B가 X를 간과한다고 보았다.’는 형식인데, X는 B에 대한 A의 차별적 입장이 된다. 이때 선지가 오답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X가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2. X가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3. X가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 A가 할 말이 아니다.